



자연분만 vs 제왕절개, 회복속도 비교해보니

자연분만이 임신·출산 이전상태로 회복 빨라 2주·6주 자궁크기(AP), 자궁내막두께 측정 결과



홍순철 교수



배효숙 교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후 자궁회복속도를 비교해보니, 자연분만 후의 회복속도가 제왕절개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분만 후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따른 자궁 회복 정도를 비교한 연구는 이번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이며, 이번 연구내용은 세계적인 산부인과 초음파학회지인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에 게재되었다.

산부인과 홍순철, 배효숙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상에서 출산한 산모 95명의 자궁크기(AP, antero-posterior diameter)와 자궁내막두께를 출산 후 2주와 6주에 초음파를 통해 비교한 결과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출산 후 6주는 '산욕기'라 부르며, 일반적인 산후회복기간이다.

		2주 후 평균	6주 후 평균	평균차이
자궁크기	자연분만	6.29cm	3.23cm	3.05cm
AP diameter	제왕절개	5.96cm	3.48cm	2.48cm
자궁내막두께 (최대두께)	자연분만	1.60cm	0.73cm	0.92cm
	제왕절개	1.41cm	0.79cm	0.58cm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신 37주 이상 출산한 산모 65명의 자궁크기와 자궁내막두께를 살펴보면 자궁크기가 자연분만인 경우는 산후 2주 평균에서 산후 6주 사이에 3.05cm 줄었던 반면, 제왕절개는 자궁크기가 2.48cm만 줄어들었다. 자궁내막두께 역시 자연분만은 0.92cm 줄어든 반면 제왕절개는 0.68cm만 줄어들었다. 또한, 임신 32주~37주 사이에 출산한 산모에게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원래 자궁의 크기는 약 80g정도인데, 임신을 하면 자궁무게가 1000g까지 늘어나며 크기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출산 후 자궁의 크기와 자궁 내막이 얼마나 빨리 원래 크기로 작아지고 얇아지는지를 자궁회복 및 출산 후 회복의 척도로 고려할 수 있다.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임신 전 상태로 훨씬 빨리 돌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상분만시에는, 제왕절개시의 자궁근육을 절개 및 봉합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자궁수축이 방해받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배효숙 교수는 "자연분만이 산후 회복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 산모도 있는 만큼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분만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출산 후 자궁회복이 빠르다는 것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제왕절개의 경우 자연분만보다 회복이 느린 만큼 산후회복기간을 6주 이상으로 여유있게 생각하고 산모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모든 산모는 빠른 자궁회복과 아기건강을 위하여 모유수유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CEO의 건강 책임진다!



고대 안암병원(원장 박승하)은 4월 19일(목) 오후 6시 30분 8층 중회의실에서 '고대병원 건강 CEO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글로벌 리더들의 건강한 신체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유지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1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입학식에는 건강 CEO 1기 및 병원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건강 CEO 과정

은 VIP를 위한 맞춤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첨단 예방의학 시스템 유전자 분석 등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또한, 의료분야는 물론 일반교양·경영·문화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교수진이 직접 다양한 고품격 커리큘럼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의료계 안팎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현직 최고의 프로골퍼가 지도하는 집중수업과 필드레슨 등을 통해 긍정적인 리더십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품격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박승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분야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경영진을 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자신과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웰빙을 추구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화재단 기부기부

12.02.08	김재홍, 최경희	₩ 7,500,000
12.02.24	정규병	₩ 20,000,000
12.03.05	2009년 신입교원 장학회	₩ 2,000,000
12.03.06	정우신	₩ 10,000,000
12.03.13	심재황	₩ 500,000
12.03.08	익명(장학금)	₩ 200,000,000
12.03.22	박대원	₩ 9,000,000
12.03.23	홍순철	₩ 5,000,000
12.03.23	김철자	₩ 10,000,000

12.04.12	의과대학 38회 동기회	₩ 5,000,000
12.03.26	김기섭	₩ 10,000,000
11.12.29	조숙행	₩ 10,000,000
12.03.28	의과대학 40회 동기회	₩ 500,000
12.02.27	이상훈	₩ 20,000,000
12.04.26	전용혁	₩ 50,000,000
12.04.27	이철희	₩ 5,000,000
12.05.10	의과대학 40회 동기회	₩ 113,000,000
12.05.11	이영인	₩ 10,000,000


* 기간 : 2012년 02월 08일~2012년 05월 11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젝트 참여



고대 안암병원(원장 박승하)이 성북구에서 주최하는 '사회적기업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박승하 원장은 지난 4월 19일(목) 종암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해 성북구가 권내의 사회적 기업들과 여타 기업,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고대 안암병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8개구 지역의사회장 간담회 개최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4월 6일(금) 오후 7시 30분에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8개구 지역의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병의원과 고대 안암병원 간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의 치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최신지견을 나누는 연수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으로,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종로구 등 8개구 지역 의사회장단이 참석했다. 


방송작가 · PD, 그들이 고대 안암병원에 모인 이유는?



고대 안암병원은 4월 12일(목) 오전 10시 8층 중회의실에서 방송작가 및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작가 · PD 의료 현장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주최, 국민의학지식 향상위원회(이하 지향위)가 주관하고 고대 안암병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의료현장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신과 병동소개, 시신기증 절차 소개, 무균실 소개 등 의료현장 소개에 이어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방문해 실제로 현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반기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의사회 연수교육 성료



고대 안암병원(은)은 지난 4월 12일(목)과 19일(목) 이틀간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지역 의사회 연수교육'을 마쳤다.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교육은 지역 개원의들에게 최신 의료지식을 전달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질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사전에 개원의에게 연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 강의 주제를 정한 덕분에,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등 지역 개원의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경과, 파킨슨병 건강강좌 개최



신경과(과장 김병조)는 4월 10일(화) 오후 2시 8층 대강당에서 '파킨슨병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 '레드투립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레드투립 캠페인은 파킨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국제 캠페인으로, 전세계 파킨슨병 환자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봉사의 손길을 내민 새로운 얼굴은?



고대 안암병원은 4월 16일(월) 오후 1시 8층 소회의실에서 '2012년 상반기 고대 안암병원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을 열었다. 의료사회사업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은 약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원과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고대안암병원서 열린 이색 사진전 _박종훈 대외협력실장, 기부문화 확산 위해 후원



고대안암병원에서 지난 5월 4일(금) 독특한 사진전이 열렸다. 아프리카 브룬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담은 이 사진의 작가는 유명 사진가나 구호단체가 아니라 사진에 나온 아이들 스스로가 찍은 것이다.

유명세도 없고 병원과 관계를 찾기도 어려운 사진전이 갤러리나 화랑도 아닌 병원에서 열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답은 고려대학교의료원 박종훈 대외협력실장이 갖고 있다.

박종훈 실장은 "평소 좋은 의료기관이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후원하게 된 것은 그런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실장은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하는 모금전문가학교 과정을 통해 주최자인 차풍 신부를 만나게 됐다.

차풍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는 '꿈꾸는 카메라'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식료품이나 생필품 대신 사진을 주고 자신의 모습을 담아보도록 한다. 필름을 현상해 다시 가져다주는데 약 3개월이 걸린다.

차풍 신부는 "카메라나 그림 등 문화를 통해 추억을 남기고 꿈을 찾았으면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병을 앓고 있으면 자신감을 잃거나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이런 사진전


을 통해 자신감과 꿈을 가질 수 있으면 한다"고 입원 환자들에 대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

박종훈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미개발국가라고 해서 아이들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며 사진전을 통해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에 공감했다"고 전시회를 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그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과 함께 기부문화를 공감하고픈 마음도 있었다. "병원에서 이런 행사를 열기는 쉽지 않다"며 박종훈 실장은 "사진전 등 외부 기부행사 뿐 아니라 원내 희귀병 환자를 대상으로도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8개 기관에 매월 상당한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기부는 해본 사람이 또 한다는 원칙을 배웠다"며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후원자를 모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뜻을 시사했다.

그뿐 아니라 대외협력실장으로서 기금마련 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박 실장은 "단순히 동문에게 기금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금 마련을 다변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회가 단순한 사진전만은 아님을 시사했다.

기금 마련을 다변화하기 위해 박종훈 실장은 여러 곳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 학교 과정을 추천했다. 박 실장은 "모금전문가학교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라며 "이 전시회는 일종의 졸업작품"이라며 향후 의료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데일리메디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종양혈액내과 김병수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중개연구단장에 임명



종양혈액내과 김병수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중개연구단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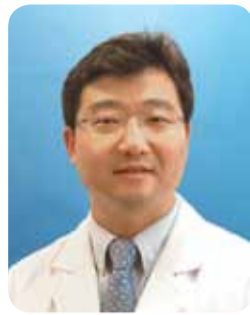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중개연구단장은 질병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를 비롯한 예방과 관련된 중개연구 관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직책이다.

김병수 단장은 혈액종양 및 줄기세포와 관련해 탁월한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IRB 등 중개연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어 중개연구단장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신임 김병수 R&D 진흥본부 중개연구단장은 지난해 12월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및 교육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줄기세포연구소 소장 및 고대 안암병원 IRB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김 단장은 △질병관리본부 줄기세포주 등록위원회 위원 △한국줄기세포학회 이사 △한국국기윤리심의회의현장 평가위원장 △IRB국가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병원 원가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정 교수, 폴 안센박사 학술상 수상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정 교수는 지난 4월 12~13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6회 폴 안센박사 조현병 연구 학술상' 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에서 제정한 학술상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상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의 생물학적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국내 정신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현정 교수는 대표적인 조현병의 치료에 있어 개인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유전적 맞춤치료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교수는 조현병, 조울병, 수면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70여 편의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SCIE 학술지인 Psychiatry Investigation의 Associate Editor,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현병이란 정신분열병의 새 이름이다. 정신분열병의 어감이 좋지 않고, 환자들에게 편견을 줄 우려가 있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조현' 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의미로 신경계 일부에 이상이 있어 행동이나 마음에 문제가 나타나는 병을 현악기의 줄이 틀어져 올바른 음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 비유한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함병주 교수, 2012년 GSK 학술상 수상



정신건강의학과 함병주 교수가 지난 4월 12일~13일 양일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과 춘계학술대회' 에서 '2012년 GSK 학술상' 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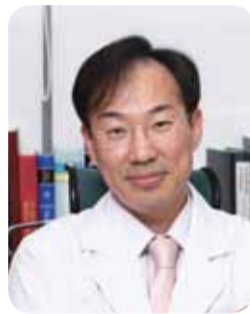
GSK 학술상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함병주 교수는 현재까지 50여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울증의 뇌영상 및 유전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내었다.

또한,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젊은 연구자상 및 학술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GSK젊은 연구자상 등 우울증과 관련된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간사,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정보이사, 대한생물정신의학회 기획이사 등 관련 학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경과 정기영 교수팀, 우수논문상 수상



신경과 정기영 교수팀이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이용한 건식능동뇌파전극 개발(Development of an Active Dry EEG electrode Using an Impedance-Converting Circuit)' 에 관한 연구로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3월 23일(금)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 16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에서 정기영 교수팀 고덕원 연구원이 제출한 논문이 이 같이 우수 논문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전극과 피부 사이에 전해질 등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정도의 뇌파 측정이 가능하며 검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 가능해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 상황에서의 뇌파 검사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기영 교수는 뇌파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토대로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등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SCI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과중환자실 이자영 간호사, 제11차 한일중환자의학회 합동학술대회 임상논문 발표



내과중환자실 이자영 간호사는 4월 22일(금)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 11차 한일 중환자 의학회 합동학술대회'에서 내과중환자실 임상논문(기관삽관 튜브에 첨부되어있는 성문하 분비물 배액관에 적용한 간호관리 프로토콜 효과연구)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이 주제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한 논문이다.

2011 지표보고회 성료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4월 10일(화) 11시 30분 8층 중회의실에서 '2011 지표보고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1 지표보고회는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 중인 필수지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작년 지표추이 및 원인분석, 개선활동에 대한 활동을 보고 하는 자리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IPFG(국제 환자안전 목표) 발표와 함께 ▲간호부 ▲감염관리실 ▲고객서비스팀 ▲총무팀 ▲마취통증의학과 ▲수술실 ▲안진관리실 ▲약제팀 ▲영상의학과 ▲원무팀 ▲의료정보팀 ▲임상시험센터 ▲적정진료관리팀 ▲진단검사의학과 ▲보험심사팀 등 2011년도 필수 모니터링 지표 대상부서 15개과가 발표를 진행했다.

5월 행사 계획

소아청소년 당뇨 봄건강캠프

일시 : 5월 20일(일) 오전 10시
 장소 : 8층 대회의실, 고려대학교 사범대체육관
 내용 : ▲개회식 ▲특강 : 부모-자녀의 건강한대화
 ▲고대 탐방 ▲미니운동회
 문의 : 02)920-5896

재난대비모의훈련

일시 : 5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8층 중회의실
 내용 : 방사선 유출 재난대비 모의훈련
 문의 : 02)920-5224
 기타 : 일부 주차장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프트로지 분만교육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8층 소회의실
 대상 : 임신 30주 이상의 산모
 문의 : 02)920-5639

맞춤 항암제로 폐암 환자 생존기간 3배 늘려

[중앙선데이 4월 29일 게재]

고대 안암병원 암센터 김열홍 소장에게 듣는 맞춤 항암치료



맞춤 항암치료란.

“암치료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에다 항암·방사선 치료가 병행된다. 수술만으로는 암의 재발률이 20~50%에 이르기 때문이다. 항암제를 이용해 암세포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하거나 수술 후 미세하게 남은 암세포를 없애 재발률을 낮춘다. 맞춤 항암치료는 이렇게 항암제를 이

용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치료법이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됐다. 암환자의 약 50%가 맞춤 항암 치료 대상이다.”

맞춤 항암치료의 원리는.

“맞춤 항암치료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와 항암제 투여다. 특히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표적항암제가 이용된다. 암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세포에 영향을 줘 발생한다. 한 종류의 암은 수십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암 발생에 깊이 관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 맞춤 항암치료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암제를 사용해 치료효과를 높인다. 지금까지 암 종류별로 몇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했다. 맞춤 항암치료는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견과 여기에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의 개발이 함께 가야 가능하다.”

맞춤 항암치료의 장점은.

“암도 골라서 치료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항암 부작용 없이 암치료 효과를 높이는 최상의 치료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같은 암에 걸린 A, B 두 명의 환자가 있다. 같은 항암제로 치료했다. 하지만 한 환자는 치료효과가 좋고, 다른 환자는 전혀 효과 없이 부작용만 겪는다. 암을 일으킨 유전자 돌연변이가 달라서 발생한 차이다. 두 사람에게 사용한 항암제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서만 효과를 낸 것이다. 맞춤 항암치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항암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한다.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환자의 치료효과와 생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항암제에 따른 환자의 부작용이 줄고 항암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 비싸지 않다.

“유전자 분석이 시작된 건 1990년부터다. 당시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모두 분석하려면 300억 달러가 들었다.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도 암에 걸린 후 2005년 50만 달러를 들여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분석 기간만 1년이 걸렸다. 최근 유전자 검사가 대중화되고 있다. 2010년 기준 분석비용이 1만 달러로 떨어졌고 분석기간은 2주로 줄었다. 2014년이면 분석 비용이 약 100달러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결과도 4시간 뒤 알 수 있게 됐다. 맞춤 항암치료가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암세포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30만~50만원의 비용으로 이틀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 항암치료가 활발한 분야는.

“폐암·위암·대장암·유방암이다. 이 중에서도 폐암이 선두에 있다. 폐암 환자에게선 EGFR, ALK 등 8종류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다. 이 중 EGFR과 ALK에 효과를 보이는 세 가지 항암제가 나왔다. 이레사, 타세바, 크리조티닙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맞춤 항암제를 사용하자 6~9개월에 불과하던 환자의 생존 기간이 평균 2~3년까지 연장됐다. 크리조티닙은 약 5%의 폐암 환자에게 기적의 약으로 불린다. 폐암 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이 늘며 여기에 치료효과를 보이는 항암제 개발이 한창이다.”

위암의 맞춤 항암치료 효과는 어떤가.

“위암 환자에게는 건강한 사람보다 HER-2라는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다. 이 유전자는 유방암 환자에게도 많다. 위암에는 HER-2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허셉틴(표적항암제)과 기존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면 치료 결과가 좋다. 현재 허셉틴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암 환자는 약 10%이지만 위암의 맞춤치료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암 환자에서 관찰되는 EGFR, FGFR, c-met 등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표적치료제가 개발 중이다.”

대장암·유방암·피부암도 맞춤치료가 적용된다는데.

“대장암은 APC, KRAS, p53 등 6개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암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의 성장을 막는 항암제 아바스틴이 개발됐다. 엘비투스 항암제는 난치성 직결장암 환자를 치료한다. 유방암 환자는 네 가지의 유전자 돌연변이 그룹이 있고 세 가지 표적항암제가 나왔다. 피부암인 흑색종을 치료하는 베무라페닙은 BRAF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50%에서 효과적이다. 기존 항암치료보다 사망률을 63% 감소시켰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어버이날 풍성한 행사

어린이 선물증정,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무료 건강검진 등 실시

고대 안암병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했다.

4일(금)에는 이기형 진료부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이 교직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30여명의 교직원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기념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을 받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감사의 인사를 담은 울동과 노래를 준비, 깜짝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8일(화) 어버이날에는 간호부 주최로 50세 이상 입원 환자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은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에 사랑을 싣고’ 행사가 진행됐으며, 로비에서는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 친절리더 역시 ‘사랑과 건강을 부모님 품 안에’라는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 갈증을 해소시킬 음료를 제공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버이날 입원한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은숙 간호부장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Q&A

[동아일보 게재]



Q: 흔히 정신건강(정신질환)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극소수 아닌가요.

A: 2011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전국 정신질환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병원에 온 환자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정상 생활을 하는 일반인 6000여 명을 가가호호 방문해 조사한 것이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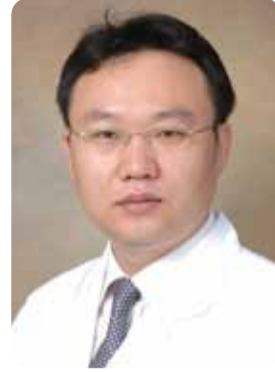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27.6%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불안장애, 음주 관련 질환, 흡연 관련 질환과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그중에서 한 번이라도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 중 85%가 전혀 치료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치료받지 않은 사람의 80%가 자신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되면서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찾는 세상이 됐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7대 무역국에 진입했으며 주요 20개국(G20)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지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5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과 행복 수준 간에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제 식민통치, 6·25전쟁으로 접철된 고난의 근대사를 거쳐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채 위안과 치유를 갈구해 왔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국민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결코 나와 상관없는, 극소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가 나와 내 이웃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글 |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수 교수

방사선의 오해와 진실 Q&A

[동아일보 게재]



Q: 방사선치료를 하면 머리가 다 빠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요?

A: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우리 속담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서로 관계된 것처럼 보이게 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이 속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치료와는 무관한 증상을 호소하며 "방사선 치료 받고부터 생겼다"고 불평하는 환자를 종종 봅니다.

보통 방사선치료는 1개월 이상 받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불편함이 생기면서 방사선치료 때문이 아닌가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치료는 치료를 받는 부위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탈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는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방사선이 우리 몸에는 해로울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치료 부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양할 수 있으니, 꼭 담당 의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방사선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잘못된거나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문, 방송 등의 매체에서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한데 묶어서 부작용을 표현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방사선치료도 암과 싸우는 치료이니 항암치료라 할 수 있지만, 보통 항암치료라 함은 항암 약물치료를 말합니다. 그러니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방사선치료의 부작용과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방사선치료를 받는 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거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일시적이고 며칠 쉬면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거나 몸이 쇠약한 환자라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처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방사선치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글 | 방사선종양학과 박영제 교수



예의바른 어린이, 감사합니다!



빨리가서 풀어봐야지, 바쁘다 바빠!



야호! 어린이날이 제일 신난다!

음료수 잘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맞이 무료 건강검진 중인 간호부



헛개차 드시고 힘내세요!



시원~한 음료수 한잔 드세요! 친절리더

부모님 새벽잠이 줄어들었다면, 혹시 원인은?

[건강정보 1]

하지불안증후군인지 확인 먼저!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부모님들, 흔히 나이가 들어서 잠을 이루기 어렵고, 새벽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혹시 하지불안증후군이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뭔가 기어간다거나, 저리듯한 이상한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증상인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등으로 오인해 치료하거나 피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에게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생각할만큼 끔찍한 병이다. 어버이날, 부모님께서 잠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하지불안증후군은 아닌지 체크해보자.

▲이불조차 덮을 수 없었던 이모씨, 딸에게도?

가정주부 이모씨(58세, 여)는 1년전부터 밤에 통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자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종아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과 불편감이 있어 다리를 가만히 둘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리를 조금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듯했지만 곧 같은 느낌이 반복됐다. 디스크나 허리에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싶어서 관련 치료도 하고, 폐경이후 갱년기 증상인지 싶어서 호르몬제도 먹어봤지만 증상은 오히려 심해지기만 했다. 결국 다리에 이불을 덮을 수도 없고, 뭔가 스치기만해도 끔찍한 느낌이었다. 특히 식탁에 기대 서서 잠을 청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 증상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점이 답답했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이 우연히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해 알게되어 치료를 받고 약물을 먹기 시작한 지 2주만에 증상이 훨씬 호전되었다. 이제 다리에 이불도 덮고자고, 저녁에 폭 잘수 있어서 새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특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31세 딸에게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했다.

▲ 하지불안증후군이란?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상태에서 사지에 불쾌한 감각을 나타나고 자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일면서 움직여 주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증상이 낮 보다는 주로 밤에 더 심해지는 증상을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한다. 저녁이나 밤에 다리가 근질근질 하다가,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거나, 저리다거나, 막연히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상 감각은 종아리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다리를 털게 만든다.

이 불편감을 해소하기위해 살을 굵고, 주무르고, 발을 펴보지만 증상을 다소 줄일뿐이며, 결국 잠에서 깨기 때문에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은 불면증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가만히 있기 어려워 학업, 업무, 여행 등 방해

하지불안증후군은 정적인 상태에서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회의, 영화관람, 장시간 운전, 장시간 여행 등이 어렵다. 때문에 원만한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우울증 빈도도 높아지며 결국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려워 부산해지기 쉽기 때문에, 선생님께 자꾸 꾸중을 받아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고,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우며, 주의력 장애나 학습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심한 하지불안증후군 7.5%, 치료는 15%만

무작위로 추출된 5,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 한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며 심각한 수준의 하지불안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달했다. 외국에서 조사한 유병율 역시 2.5~15%까지 매우 다양하다. 주의깊게 관찰하면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신경질환인 것이다.


그러나 심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중 약 15%만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증상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소아에서도 나타나는데, 소아에서는 성장통이나 주의력결핍장애로 오인받기 쉽고, 실제로 예전에 성장통이라고 간단히 넘겼던 아이들의 상당수가 소아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는 연구도 있다.(연구논문제목 하단첨부)

▲ 조기에 발병하는 유전, 약물복용으로 손쉽게 치료

하지불안증후군은 특별한 이유없이 발생하는 특발성과 기타 여러 가지 내과적, 신경과적,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발성의 경우는 유전적 요소가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기타 이차적인 경우는 임신부의 20%, 혈액투석 환자의 20~65%, 철 결핍성 빈혈의 31%, 말초신경병의 5.2%의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조기에 발병하는 경우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더 많고, 노년의 발병은 이차적인 경우가 많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다리마사지, 족욕, 가벼운 운동 등 비약물치료를 권하고, 심한 경우는 약물로 치료한다. 약물 치료의 경우 철분 결핍이 확인되면 철분을 보충해주고, 도파민 제제를 소량 복용하면 대개 1~2주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다.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하지불안증후군은 약물로 비교적 치료가 손쉬운 병임에도, 의료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만약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다리를 불편해하거나, 밤에 불면증이 생긴다면 증상을 귀기울여 듣고 하지불안증후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정기영 교수

2012년 1분기, 최고 친절직원·부서는?



고대 안암병원은 4월 25일(수) 원장실에서 '1/4분기, 친절직원 및 부서'를 선정해 포상했다. 2012년 1분기 친절직원에 흉부외과 이승현 전공의(R2)와 시설팀 김종욱 주임기능사가, 친절부서에는 55병동과 소화기내과가 선정됐다. 친절직원과 부서에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안암병원은 고객소리함과 온라인, 부서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만족사례를 근거로 분기별 친절직원 및 부서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손장욱 감염내과 교수, 이기형 진료부원장, 이은숙 간호부장, 이연정 소화기내과 책임간호사, 이승현 흉부외과 전공의, 박승하 원장, 추영수 55병동 수간호사, 김종욱 시설팀 주임기능사, 김홍석 고객서비스팀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가정의달, 아내와 딸을 위한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남편이, 아빠가 선물하세요! [건강정보 2]

산부인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위한 젊은 여성환자 증가 만9~26세, 접종 후 최대 90%까지 예방 / 55세까지 접종 가능



20대 젊은 여성들의 산부인과 내원율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왜일까?

“26세 이전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방접종을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박미혜, 26세, 서울 중구 신당동)

최근 산부인과를 찾는 미혼여성들이 늘고 있다. 요즘 트렌드는 성형외과나 치과에서 산부인과로 이동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예전보다 성생활이 개방화되고 결혼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어 향후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자궁 건강에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당히 자신의 건강을 보필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실제로 자궁경부암 등에 의한 국내 사망자 수가 지난 2010년 1만 2500명에 달하는 등 여성들의 자궁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목부분인 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세계적으로 여성암 발생비율의 15%를 차지하고 국내 발생률이 9%에 이른다. 자궁경부암은 일반적으로 국내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20~30대 등 젊은 층의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궁경부암

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문제다.


송재운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HP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며 “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자연 소멸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자궁경부암, 항문 및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재운 교수는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면 자궁 절제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자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보통 80~90%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9세부터 26세 이전 여성이라면 누구나 접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45~55세 중년의 여성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HPV 예방백신은 총 3회 접종하면 된다. 1차 접종 후 1개월 혹은 2개월 뒤 2차 접종을 하고 6개월 뒤 마지막 3차 접종을 하도록 한다. 만약 6개월 이내 접종이 어려우면 올바른 항체 형성을 위해 1년 이내에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접종 시 가벼운 통증 및 몸살, 빈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백신만으로는 자궁경부암 발생을 100%로 차단할 수는 없다. 암은 세포 변형에 따른 발생이 가능한 만큼 예방접종 이후에도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송재운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되면 완치 확률이 매우 높지만 발생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 검진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미 암의 진행이 시작된 상태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한 자궁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및 꾸준한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그는 “매년 정기검진을 하게 되면 90% 이상의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병행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고는 있지만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여성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교육 및 정책적인 지원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천혜의 섬 굴업도 [掘業島]

[여행정보]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90km, 덕적도에서 남서쪽으로 13km 거리에 있는 굴업도(인천 옹진군 위치)는 천혜의 비경, 서해의 진주, 생명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된 섬이다. 지명은 사람이 없드려 일하는 형상이라 하여 굴업도라는 이름이 유래된 화산섬으로서 전체가 십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해안가와 험한 절벽, 파도와 염분에 침식된 해식과 지형 등 독특한 풍광이 눈길을 끈다.

연평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섬 전체의 비경과 소나무를 비롯하여 이팝, 팽, 만주교로쇠, 좁쌀, 생강, 찰피, 동백, 으름, 보리수, 물푸레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로 숲을 이루고 있고, 길옆으로는 갯메꽃, 갯방풍, 해당화, 모래지치, 백선, 두루미천남성, 큰천남성 등 희귀 야생화군락을 이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최고봉은 126m로 북동쪽에 솟아 있으며, 남서쪽의 덕물산(122m)을 제외하면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지가 대부분이다. 연안 일대는 수심 10m 내외의 대륙붕이지만, 어업활동은 전혀 없

고 자연산 굴과 김을 소량 채취할 뿐이다. 교통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이 덕적도를 경유하여 운항된다(2시간 소요). 지형학적으로 면적 1.71km², 해안선 길이 12km이며, 살고 있는 주민은 가구 8, 인구 23명(2012)이다.

지난 2009년 9월 산림청과 생명의 숲이 주최한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대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2009, 이곳만은 꼭 지켜라!』환경부장관상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굴업도의 독특한 해식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예고한 곳이기도 하다.

코스로는 개머리평원-큰마을해변-토끼섬-목기미해변-연평산-덕물산을 가볼 수 있으며, 개머리평원에서바라보는 이국적인 모습과 해를 늦게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해넘이의 장관도 이 섬의 백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바위로는 오빠바위, 동생바위, 마귀할멈바위 3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남매의 사랑전설이 있는 ‘선단여’와 연평산을 오르면서 좌측으로 보이는 코끼리바위가 있다.

그 외 섬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모래사장, 깎아지른 절벽 아래 호수같이 잔잔한 맑은 물빛, 완만한 곡선을 이룬 부드러운 산의 평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주변 섬과 무인도를 바라보는 조망은 탄성을 절로 나게 한다.

이와같이 인천 앞 바다의 섬들 중 아름다운 섬 굴업도를 웰빙 여행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하고 싶다.  글·사진 | 조규은 원대기자(종합건강진단센터)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 2012년 05월 21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 호 상	화, 목	화, 목	간질환, 위장관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박 철	월, 금	월, 금	귀성형, 화학파피				
	김 창 덕	수, 금	월, 목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안 덕 선	수	수	손저림증, 화학파피				
	엄 순 호	월, 수, 금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박 승 하	금	금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파피, 턱성형				
	전 훈 재	화, 목, 금	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이 병 일	월, 수	월, 수	미용성형, 유방성형재건, 안면외상재건, 미세수술				
	이 훈 식	월, 화, 목, 토	토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위장관질환(토오전:2주)		윤 을 식	목	화	유방재건, 지방성형, 수부재건, 눈성형, 레이저				
	진 윤 태	수, 금	화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장 서 윤	화	목	일반재건성형, 미세수술				
	김 보 라	수, 목	수, 목	위장관질환		일 반 의	화, 수, 목, 금	월-금	의상				
	김 은 선	수	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화, 수	수, 금	소아심장질환, 신생아			
	정 진 용	월, 목	월, 금	위장관질환			이 광 철	월, 목, 금	목	소아혈액종양, 대사질환			
	최 혁 순	토	화	위장관질환			정 지 태	화, 금	월, 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김 예 시	토	토	위장관질환(토오전:3주)	이 기 형	월		월, 수, 목	소아내분비질환(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비만(목오후:2,4주))					
김 선 영	토	토	위장관질환(토오전:4주)	유 이 영	월, 수		화, 금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내과 3층 ☎5410	김 형 구	월, 금	화	고혈압, 신장질환	이 은 희		토	월, 목,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토오전:3주)				
	조 원 용	수, 금	월, 수	고혈압, 신장질환	남 우 어		수, 금, 토	화	소아내분비(토오전:4주)				
	조 상 경	목	수, 목	고혈압, 신장질환	일 반 의		화, 목, 토	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토오전:2주)				
	김 명 규	월	화	고혈압, 신장질환	소아클리닉		손 창 성 (월 오후)	소아심장초음파(심장초음파실)					
	김 재 은	화	화	고혈압, 신장질환			이 기 형 (월 수 오후)	소아내분비-저신장, 성조숙증, 당뇨, 갑상선					
	조 은 성	월, 목	월, 목	고혈압, 신장질환		이 은 희 (목 오후)	미숙아, 신생아클리닉						
	김 민 자	수, 금	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은 소 희 (목 오후:1,3주)	소아신경생리						
	손 장 욱	월, 목	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임 형 은 (수 오후:2,4주)	소아신장질환						
	손 윤 경	수, 금	수, 금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유방, 내분비외과 (유방센터) 2층 ☎6670	배 정 원	월, 화, 목	유방암 및 갑상선암/유방암클리닉(월, 목:오전)				
	김 시 조	화	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김 훈 영	수	월, 목	갑상선암 및 부갑상선 질환, 부신종양/로봇갑상선수술클리닉(수:오전)			
박 용	화, 수, 목	토	빈혈, 자반증(망)클리닉	이 혜 윤			화, 금	수, 목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지 중 대	목, 금	월, 수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유 지 영			금	화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이 영 호	월, 화, 수	화, 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안과 2층 ☎5520			조 윤 애	월, 목	월, 목	사시클리닉, 약시			
내과 일반의	월-금	월-금	내과질환		김 효 명		화, 목	월	백내장클리닉, 각막클리닉, 근시교정(라식)클리닉				
내분비센터 3층 ☎5421	최 동 섭	월, 화, 목, 금	목		내분비		유 재 권	월, 수	월	망막 클리닉, 유리체(수:오후-레이저환자만)			
	김 희 영	화, 수, 금	월, 수		내분비		서 영 우	화, 수	목	녹내장클리닉, 백내장(수:오전-초진환자만)			
	김 주 형	목	월, 화, 목		내분비		강 수 연	목, 금	화	사시, 약시, 안성형			
	김 윤 창	화	수, 금		내분비		임 영 섭	수, 금	수, 금	백내장, 각막, 안과일반			
	안 재 희	월	내분비		내분비	일 반 의	화, 수, 금	화, 수, 금	안과 일반화				
	암센터 2층 ☎5581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 경 환	월, 수, 금	수, 금	노인학, 골다공증, 만성질환, 호스피스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고 병 준	화, 수	수, 금	골다공증, 노인학, 건강증진, 금연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김 양 현	목	화, 목	비만, 건강증진, 해외진료, 건강상담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한 병 덕		월, 화, 금	월-금	금연, 비만, 건강증진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일 반 의		월-금	월-금	신체검사, 건강상담, 성인예방접종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정신건강 의학과 2층 ☎5505	이 민 수		월, 수, 금	수	우울증, 치매, 조현병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김 리 린		[보직:휴진]	수면장애, 적응장애, 조현병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함 병 주		월, 목	월, 목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이 현 정		화, 수, 목	화	조울증, 수면장애, 조현병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윤 호 경		금, 토	화, 목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최 인 광		화, 토	월, 금	일반정신의학(토오전:2,4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일 반 의		월, 수~토	월, 수, 금	일반정신의학(토오전:매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신경과 2층 ☎5510		박 건 우	목	월, 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김 병 조	월, 수	화, 수	다발성경화증, 말초신경질환, 척추, 근육질환(화오후:초진진료)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정 기 영	수, 목	월, 목	간질(뇌전증), 수면장애, 두통, (목오후:수면장애)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유 성 욱	월, 화, 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금:오전 2,4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조 경 회	화, 금, 토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금:오전:1,3주)(토:오전:3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이 찬 념	화, 금, 토	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토오전:2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장 천 홍	토	월, 수, 금	신경과질환,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토오전:4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일 반 의	월, 수, 목	화	신경과질환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산부인과 2층 ☎5450	김 선 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홍 순 철	월, 토	화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송 재 윤		수, 금	월	산과, 임신중약물상담, 고위험임신클리닉(토오전:매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배 상 훈		화, 금	수, 목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로봇수술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정 예 원		화	월, 금	부인암, 중앙생식부종(암환자수정란, 난자, 난소동결&이식)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일 반 의		월, 금, 토	화, 수	산과, 일반산부인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김 선 행		목	수	자궁탈출, 부인암, 일반산부인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홍 순 철		월, 토	화	일반산부인과(토오전:매주)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송 재 윤		수, 금	월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배 상 훈		화, 금	수, 목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정 예 원	화	월, 금							
김 열 흥	수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일 반 의	월, 금, 토	화, 수							
호흡기내과 ☎5111	유 세 화	월, 수	월,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산부인과클리닉	김선행(월-금 오전, 수 오후, 목 오전), 김택(월 오전, 화 오후), 홍순철(월 오전), 송재윤(수 오후, 금 오전), 이상훈(화, 금 오전, 목 오후)							
	이 상 현	월, 금	월, 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피부과 2층 ☎5470	계 영 철	월, 화, 목, 금	수, 목, 금	건선, 탈모, 아토피, 레이저			
	이 승 현	토	화,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안 효 현	수	수, 목, 금	아토피, 백반증, 레이저			
	이 은 정	금	화,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 수 훈	목	월, 수	피부암, 백반증, 레이저(수요일만)(토오전:2주) 피부과레이저클리닉:수요일			
	김 광 태	화	목	폐, 기관지,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최 재 은	월, 금	화	여드름, 아토피, 레이저(목오후만), 피부과레이저클리닉:목오후			
	선 광 태	목, 금	목	신장, 혈관외과, 인공신장			일 반 의	토	월, 금	일반피부과학(토오전:3주, 4주는 학회로 진료 없음)			
	손 호 성	목	월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비뇨기과 2층 ☎5530	김 제 중	수, 금	수	남성과학, 불임		
	정 재 호	월	금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이 정 구	월, 목	월	배뇨장애, 요실금		
	조 중 호	수	수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천 준 준	화	화, 목	종양학, 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정 재 호	수	화	심장(관상동맥, 판막), 혈관질환				고 영 귀	수, 금	월, 수, 금	내 비뇨기과학, 종양학, 결석		
김 중 석	수	월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장 성 구	화, 목, 금			금	내 비뇨기과학, 일반비뇨기과학, 종양학				
박 성 일	화	수, 금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장 훈 아	금	화, 금		일반비뇨기과학					
조 성 일	수, 금	수, 금	위암, 상부위장관 질환	재활의학과 2층 ☎6470	권 희 규	월, 수, 금		월, 목	전기진단, 뇌성마비, 척추손상				
서 성 욱	월, 수	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강 윤 규	화		월, 목	통증, 관절염				
김 동 식	화, 금	화, 수	간, 간이상, 담도, 췌장질환		이 상 현	목		화, 수	척추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유 영 동	목	화, 금	간, 담도, 췌장질환		편 성 범	수, 목		화	뇌질환재활, 인지장애, 연하(삼킴)장애				
정 성 일	월	화	간, 담도, 췌장질환		하 강 욱	금	월, 목	일반재활의학과과과학					
김 선 한	금	월, 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윤 형 석	월, 목	수	일반재활의학과과과학					
김 정 면	화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일 반 의	화, 목	수	건강철통증, 경부통증, 요통					
김 신 재	수	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치과 2층 ☎5423	권 중 진	월, 금	화	구강외과				
박 관 태	화	목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임 용 규	월, 수	월, 수, 목	교정과				
정 철 응	월	화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췌장질환			전 경 아	월, 화, 목	월, 목, 금	보존과				
부 윤 정	목	화	소아외과, 탈장	최 연 조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보철과					
정형외과 3층 ☎5430	채 인 정	목	화	무릎, 인공무릎관절, 관절경, 척추		전 상 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구강외과				
	이 순 학	수	월	소아정형외과, 사지연장술, 족부, 금오펀:1,3,5(뇌성마비 및 보행장애, 족부변형) 금오펀:2,4(고관절이형증, 초음파클리닉)		지 예 진	화, 목, 금	월, 목, 금	치주과				
	서 승 욱	금	화	척추측만증(1,4주)		김 예 진	월, 화, 토	월, 화, 금	교정과(토오전:매주)				
	한 승 욱	월, 목	목	수부, 미세수술		일 반 의	월-금	월-금					
	박 중 욱	화	화	인공슬관절, 인공고관절, 고관절, 골절, 외상학		이비인후과 2층 ☎5485	이 상 학	월, 수, 토	월	알레르기, 후각, 코성형, 부비동염, 부비비동			
	정 욱 고	월, 금, 토	금	어깨, 팔꿈치, 스포츠외과(토오전:4주)			박 세 준	화, 목	화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			
	박 시 의	수, 토	월, 수	척추, 외상(토오전:3주)	전 영 준		수, 금	금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				
	이 대 희	화, 토	목	무릎, 스포츠외과(토오전:2주)	정 학 현		목	월, 목	만성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어지럼증				
	김 태 권	수	수	외상	임 기 정		화, 금, 토	금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토오전:3주)				
	신 일 반	월-금	월-금	외상	장 지 원		월, 수, 토	수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일반이비인후과학(토오전:2주)				
외과 일반의	월-금	월-금	외과질환	정 광 욱	화, 목		화	두경부암, 갑상선암, 부갑상선암(내시경, 로봇수술)					
외과 일반의	월-금	월-금	외과질환	백 승 국	수, 금		수	두경부암(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경부종물)					
외과 일반의	월-금	월-금	외과질환	박 민 우	월		목, 금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학					
외과 일반의	월-금	월-금	외과질환	일 반 의	금, 토		월, 목, 금	일반이비인후과학(토오전:1,2,3,4,5주)					
신경외과 3층 ☎5550	서 중 근	화, 목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이비인후과클리닉	장 지 원(수요일): 어지럼 클리닉, 정 광 욱(목 오전): 갑상선 종양 클리닉							
	정 욱 욱	수, 목	화	뇌종양, 척추종양, 뇌혈관질환, 두통		영상의학과 3층 ☎5571	이 남 준	월, 수, 금	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 중재시술			
	박 정 욱	금	월	통증외과, 척추질환, 간질, 운동장애			김 윤 한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간암 및 복부 인터벤션시술			
	조 태 형	월, 수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줄기세포치료			조 성 범	월, 수, 금	월, 수, 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강 신 학	월	목	뇌종양, 소아뇌질환, 뇌혈관질환, 두통, 안면경련			해의학과☎5540	천 기 정	월	월	종양학의학, 방사선종양치료		
	이 장 보	화	목	척추질환, 척추외상				통증의학과 ☎5529	장 성 호	월, 목	월, 목	통증관리	
	박 동 화	화, 수	화, 수	뇌혈관질환,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부외상					박 지 욱	화, 금	화, 수, 금	통증관리	
	박 등 재	금	화	뇌혈관조영술 및 두경부 중재시술, 뇌혈관 질환(뇌동맥류), 뇌종양,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김 중 철	금	화	척추질환, 두부외상									
	통합의학센터 ☎6930	이 성 재	금	월, 수, 목						심장건강, 뇌건강, 피부건강, 여성건강, 암건강, 만성통증관리, 학습장애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